성악 초등부 **홍승연** 광주교육대 교수

풍부한 성량·감정 표현 '감동'

호남예술제 초등부 성악 경연대회 참가자들의 노래를 듣는 내내 무척 행복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을 표현하며, 좀 더 고상한 방법으로 감정을 나타내기도 한다. 몸짓으로 내면을 드러내고, 때로는 가락에 감정을 담아 자신을 표현하기도 한다. 노래를 부르는 행위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자 행복 그 자체다.

이런 의미에 비춰 볼 때, 이번 호남예술제 참가자들은 이 특권과 행복을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존재적 행동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리에 깁스를 한 채 무대에서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것,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라 노래하는 여학생은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고 눈물까지 흘리게 했다.

수상 여부를 떠나 이번 예술제를 계기로 음악적으로나 인간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학생들이 됐으면 한다. 구체적으로 남과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도구로서의 음악이 아닌, 상대방의 감정도 이해하고 배려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멋진 도구로서의 음악이 곧 참가자들의 것이 되길 희망한다.

성악 중·고등부 **박미애** 광주대교수

이탈리아 가곡 훌륭히 소화

중학생들의 경연곡이 예전에는 한국가곡이었으나 올해는 이탈리아 고전가곡으로 발전되었고, 몸의 발육상태도 훨씬 좋아 변성된 목소리가 무르익어 좋았다.

한 참가자는 아직 변성되지 않은 목소리로 노래했지만, 정확하고 깨끗한 음정과 감정처리, 프레이징 처리가 돋보였다. 신체적으로 굳이 변성이 되지 않았으면 육성으로 노래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고등부는 여성에 비해 남성 성악도들의 참여도가 많이 떨어졌고, 실력도 지난해에 비해 떨어졌다. 좋지 않은 발성으로 노래를 많이 부른 듯 목이 상해 있는 학생들, 단어 중간을 끊어 숨을 잘못 쉬는 학생이 많았다.

또 발음이 아주 부정확하고, 루바토를 쓸 필요가 없는 곳에서 심하게 쓰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연주를 한 학생들도 눈에 띄었다.

경연대회에 나오는 학생들은 자기가 가장 잘 부를 수 있는 곡을 선택하고 음정, 발음, 리듬의 기본기를 바탕으로 표현력, 음량, 루바토 등을 잘 구사하면 좋은 경연을 펼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피아노 초등부 **이훈진** 세한대 교수

소리 조절·페달 사용 아쉬움

올해 경연자들이 비교적 고른 실력을 보여주었지만 예년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경연자는 찾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신체발달과정과 연관이 있는 페달 사용, 팔의 길이, 손의 크기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곡의 외향적 화려함 만에 치중하여 자신에게 맞지 않는 곡을 선곡한 경연자들이 눈에 띄어 아쉬웠다.

피아노 연주시 어떤 에디션(Edition)을 선택해 연습하는가는 생각보다 크게 음악을 바꿔놓는다. 특히 모차르트 소나타 등에서는 절대적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경연 중 모차르트 소나타 등에서 그 음악에 필요한 소리와 동떨어지게 과도한 악센트를 주어 연주한 경연자들을 종종 볼 수 있었다. 이는 음악자체를 바꿔놓기 때문에 상당히 잘못된 것임을 유념하여 바르게 연습하기 바란다.

아무리 간단한 음악이라 할지라도 상당히 변화 있게 표현할 수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소리의 조절, 즉 터치와 적절한 페달 사용에 의해 결정된다.

피아노 중·고등부 **문현옥** 전남대 교수

기교 위주 곡 선택, 변별력 잃어

이번 호남예술제 중·고등부 피아노 부문에서는 각각 40여명에 이르는 본선진출자들이 경연을 했다. 먼저 중·고등부 모두에서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각 세 곡의 지정곡 중 상대적으로 기교 위주인 곡을 선택해 연주함으로써 연주 수준의 변별력을 떨어뜨렸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앞으로 학생들이 지정곡을 결정할 때 자신의 기교적 또는 음악적 기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곡을 선정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여러 측면에서 도움이 되리라 본다.

특히 아쉬웠던 점은 고등부 참가자들의 수준이 예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하향한 것이다. 이는 준비기간이 짧았던 탓도 있었겠지만 학생들이 작곡자가 악보에 기입한 여러 음악적 표현과 요소들을 간과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 여겨진다.

작품이 작곡된 시대에 맞는 음악적 스타일과 작곡자의 의도, 아티큘레이션/프레이징, 페달, 다이나믹스, 음가 등을 정확히 이해하여 연주에 적용하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은 오랜 시간을 요하는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연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현악 **현순이** 광주대 교수

능력 밖 선곡, 집중력 떨어뜨려

참가자의 전반적인 수준이 지난해에 비해 약간 못미쳤다. 특히 비올라, 첼로, 베이스 부문의 경우 참가자가 적은 점은 아쉬웠다.

학교 교육에 커리큘럼이 있는 것처럼 음악교육에도 교과과정이 있고, 교과과정에 맞는 연주곡목을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심사위원의 평가기준은 음정, 리듬감각은 기본이되 자발적인 표현력이 있는가, 안정된 기본기, 음색, 연주의 완성도와 집중력이다.

그러므로 학생이 가진 음악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범위내의 곡목을 연주할 때, 완성도도 높아지고 자발적인 음악성도 표현된다.

고등학생이 다룰 수 있는 곡을 초등학생이 무리해서 연주할 경우, 기본기를 안정되게 발전시킬 수 없어 나쁜 습관이 생길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음악적인 자발성마저 위축시켜 타고난 좋은 자질을 망치는 수도 있다.

또한 규모가 큰 곡을 선택할 경우, 제한된 연주시간 때문에 중요한 부분에 도달하기도 전에 도입부분에서 연주를 중단시킬 수밖에 없는(형평성의 문제)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관악 **황성규** 전남대 교수

연주 열정, 음악 미래 보듯 '흐뭇'

저학년 참가자들의 열띤 경연이 돋보이는 대회였다. 기교적으로나 음악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의 열정적인 연주는 앞으로 이 지역 음악분야의 미래를 밝게 하는 흐뭇한 일이다.

반면에 좋은 음악성을 가지고 있으나 곡의 완성도가 부족하거나 연습방법이 좋지 않아 실수를 하는 학생들이 많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수준에 맞지 않는 화려한 곡을 선택해 부자연스러운 연주를 하는 것보다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곡을 잘 연주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콩쿠르에 나가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열정, 노력을 다하는데 입상하지 않았다고 해서 음악적 미래가 닫히는 것이 아니다. 더욱 분발하여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콩쿠르에서 중요한 것은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연주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초를 다지는 데 더욱 역점을 두고 연습에 임해야 할 것이다. 미래의 발전을 위해 단계적으로 연습하는 습관을 기르고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합창·중창 **김성국** 광주교육대 교수

율동 치중해 화음 전달력 부족

합창에서 중요한 요소는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요소는 소리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합창단의 숫자에 맞는 음량이 나와야 그 소리를 바탕으로 음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합창은 기악과 달리 가사가 있기 때문에 뚜렷한 가사 전달이 필수적이다.

대회 참가를 위해 선곡을 할 때는 해당 곡의 모든 음악적 조건이 대회의 성격과 합창단의 수준에 맞는지를 고려해서 해야 한다. 선곡을 한 후에는 그 곡에 대한 연구를 충실히 하여 그 곡의 특성이 연주에 나타나도록 지도가 이뤄져야 한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합창단의 연주는 참 좋았으나 음색이 약간 어둡거나 지나치게 밝은 면이 있어 보였다. 2박자와 6박자의 구별이 되지 않거나 악곡에 나타난 빠르기의 변화가 표현되지 않는 바람에 악구 연결이 부자연스러워 곡의 흐름이 자주 끊기는 것도 아쉬움으로 남았다.

중창에서도 그림보다는 노래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움직임을 강조하다 보니 그림은 좋아 보였지만 노래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점이 아쉬웠다.

합주·중주 **배상철** 목포대 교수

대규모 인원 파트별 앙상블 훌륭

첼로 앙상블은 저음 악기의 매력적인 소리의 어울림이 중요하다. 그래서 음정과 악상기호를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저음의 특성상 불협화음이 귀에 매우 거슬린다.

살레시오 초등학교의 첼로 중주는 카논형식의 멜로디를 세 파트가 돌려가며 화음의 조화와 악상이 잘 표현된 연주였으나 피치카토 부분은 더 크게 통을 울려주는 연주가 필요하다.

상사초등학교는 튜바의 소리와 음정, 리듬 등의 연주가 돋보였지만 멜로디 파트가 나타나지 않아 아쉬웠다.

송원초등학교는 대위법적으로 처리되는 1주제부분과 카논풍으로 처리되는 2주제부분의 연주 표현이 잘 나타났다. 폴카는 타악기 파트와 현과의 밸런스를 생각하며 연주했으면 한다.

71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이 모차르트의 곡을 연주하기가 무척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도하신 선생님께 박수를 보낸다.

양산중학교의 경우 중학생다운 소리를 내주었고 리듬과 음정도 좋았다. 금관악기 파트는 연주가 돋보였으나, 상대적으로 타악기 파트는 조금 아쉬워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술 **정상섭** 서양화가

재료·색채 선택 독창성 돋보여

미술은 심미적 경험과 상상력을 유발하는 공간적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호남예술제 미술출품작들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보였다. 출품작들은 대체적으로 색채대비 구성이 밝고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는 표현방법으로 학생들의 독창적인 생각이 많이 묻어나는 그림 내용이 많았다.

이번 심사는 주제의 접근성, 이해도, 창의성, 구성력과 완성도 등에 중점을 뒀다. 특히 표현에 있어서 주제에 부합하려는 순수한 표현과 자유로운 발상, 미적감수성, 잠재적 가능성 등을 염두에 뒀다.

저학년에서는 대담하고 순수한 창의성이, 고학년에서는 조형적 구도와 색채대비를 통한 탁월한 기량들을 보여 주는 작품들이 많았다. 또 자기만의 생각을 다양한 기법으로 시도해보면서 솔직하게 그린 작품과 자기만의 독창성이 잘 표현된 작품들이 많이 보여 반가웠다.

비록 아쉽지만 입상에 들지 못한 학생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를 보내며 전통 있는 호남예술제에 출품해 준 모든 학생들에게 박수와 칭찬을 보낸다.

운문·산문 **송은일** 소설가

획일화된 표현력…개성 부족

운문이든 산문이든, 모든 글쓰기는 문학이다. 문학은 상상력을 바탕으로 자라는 나무다. 나무는 땅, 즉 현실에 뿌리를 박고 있어야 한다. 현실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상상은 공상이며 망상이다. 때문에 무한대일 것 같은 사람의 상상은 실상 현실의 막강한 장벽에 갇혀 있기 일쑤다. 그만치 자유롭지 못하다. 성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것 같은 어린이, 청소년들의 상상력 또한 마찬가지다.

올해 호남예술제에서 수백여 편의 시와 산문들을 읽으면서 요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갇힌 현실의 벽을 새삼 목격하는 듯 했다. 초·중·고등부 모두 상상력이 빈약했다. 글쓴이만의 개성이 깃들어 있는 글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단어 하나를 가지고도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걸 표현하는 게 글쓰기다. 주변에 흔한 소재와 글쓴이의 현실, 상상력이 결합해 세상 유일한 글 한 편이 나온다. 하나의 사물이나 하나의 현상에 대한 글쓴이만의 독특한 생각과 특별한 시선이 있으면 감동이 생긴다. 세상을 미디어가 가르쳐주는 대로만 보고 그대로 따라 표현하는 글쓴이의 몰개성이 문제다.

국악 **박승희** 전남도립국악단 예술총감독

현대적 재해석 창작음악 '우수'

예향 호남의 큰맥을 이루어온 호남예술제가 매년 내실을 거듭해 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올해 경연에 참가한 단체, 개인의 숫자는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관악부문 경연자들의 출전이 많아진 점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기악 단체 초등부 최고상을 수상한 광주송원초 풍물팀은 매우 우수한 기량으로 대회를 빛냈다.

개인최고상 수상자인 고등부 가야금산조 경연자 또한 앞으로 어떻게 커나갈지 많은 기대를 갖게 한다.

지난해와 올해는 전통적인 산조뿐 아니라 창작음악이 학생부 저변에서 날로 비중있게 사랑받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해 의미가 있었다. 전통 음악도 좋지만 현대적인 어법으로 재해석된 창작음악에 한창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관심이 있다는 건 그만큼 관심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의 명인, 명창들이 전통의 호남예술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큰 선물로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한국무용 **허순선** 광주대 교수

고등부 표현력 뛰어나 눈길

'자연의 미', '절제의 미', '여백의 미', '느림의 미'가 특징인 한국무용은 천지인(天地人)과 음양오행(陰陽五行) 그리고 한, 흥, 멋, 태 등 철학을 바탕으로 한 춤이다. 초·중·고등부를 위한 춤 교육은 춤추는 자의 연령에 맞게 안무한 춤을 신체로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대회 초등부에서는 작품 주제를 그 연령에 맞게 선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그 중 '눈사람'은 작품 주제와 춤꾼의 표현력이 잘 반영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중등부에서는 아직은 설익은 기능으로 작품을 표현하다 보니 작품의 주제를 관객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감이 있었다. 고등부에서는 모두 작품에 대한 표현력은 좋았지만 너무 많이 도는 춤사위가 주가 돼 표현된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끝으로 올해 무용부문 참가자들이 많이 줄어 가슴이 아프다. 다음 대회는 순수 예술을 사랑하는 많은 무용인들이 참가하는 대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현대무용 **여순심** 광주여대 교수

놀라운 테크닉…실력 '박빙'

이런 큰 행사가 해마다 열리고 광주에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무용인들의 관심과 노력이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올해도 무용분야 여러 장르에 참가해준 학생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학생들이 오랫동안 갈고 닦은 훌륭한 기량을 볼 수 있어서 아주 좋았다.

전반적으로 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의 테크닉 면에서는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 정도로 실력들이 우수했지만 경연에 참가하는 학생 숫자가 저조하여 부문별 경쟁력은 떨어져 조금은 아쉬웠다.

특히 재즈댄스, 스포츠 댄스 특히 실용무용 부문에 참가자가 적어 아쉬움이 많았다. 하지만 참가자들의 실력들만큼은 매우 좋아 좋은 상이 주어지지 않았나 싶다.

내년에는 실용무용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다.

앞으로 우리 무용인들이 호남예술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발레 **박준희** 조선대 교수

기술·작품성·표현력 3박자 갖춰

그동안 호남예술제는 지역의 유능한 인재들을 발굴해 훌륭한 무용가로 성장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올해 학생들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대다수의 참가자들이 평소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대회였다고 생각한다.

초등부의 경우 아직은 기량과 표현력이 부족하지만 요구되거나 주어진 동작들을 무리없이 잘 소화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 고학년으로 갈수록 테크닉과 작품성, 그리고 표현능력이 성장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고, 돋보이는 무대도 많았다.

특히 이번 발레부문에서 가장 큰 소득은 탄탄한 기본기와 뛰어난 표현력을 선보인 고등부 학생들이다. 이 중에서도 클래식 발레가 요구하는 테크닉의 정확성과 표현력을 훌륭하게 소화해낸 클래식 독무는 앞으로 한국발레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창작의 경우도 학생들과 지도교사들의 노력이 돋보이는 무대였다.

실용음악 **배창희** 남부대 교수

재즈, 성장 가능성 무궁무진

실용음악부문 참가 학생들의 열의가 경연장을 뜨겁게 달군 하루였다.

초등부 기악부문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 같다. 특히 드럼과 클래식기타 연주 실력이 많이 향상됐다. 이런 결과는 학생들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지도교사의 가르침 또한 중요하리라 생각 된다.

중·고등부 경연부문에서는 전기기타 연주가 탁월했다. 약간의 아쉬움이라면 개인이 아닌, 그룹으로 참여했으면 더 멋진 연주를 할 수 있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었다. 앞으로 호남예술제 실용음악 부문이 발전해 가려면 그룹사운드 부문도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생각이다.

보컬 부문에서는 재즈스타일의 곡이 많았다. 재즈는 연륜과 경험을 통한 감성적인 표현이 중요하다. 아직은 설익은 복숭아처럼 맛이 배이지 않았지만 훌륭한 가수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보였다.

실용음악 부문이 다른 부문에 비해 참여자 수가 적었지만 매년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실용음악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만화일러스트 **양세혁** 조선대 교수

표현·아이디어 균형…실력 '약진'

만화·일러스트 부문 심사에서는 '개성적 표현'과 '참신한 아이디어'가 균형을 이룬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전체적으로 참가학생들의 '5·18'에 대한 역사 인식이 예상보다 뛰어났다는 점이 놀라웠다. 하지만 주제에 대한 조심스러운 해석 때문인지 상대적으로 스토리 설정이 진부한 점이 아쉬웠다. 만화·일러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토리를 어떻게 설정하고 풀어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중등부는 때 묻지 않은 참신함을 엿볼 수 있었다.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창의성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많았다. 고등부는 참가자가 대폭 늘면서 전체적으로 예년에 비해 수준이 높아졌다. 특히 고등부 1~2학년 학생들의 작품에서 개성적 표현과 아이디어가 잘 녹아든 작품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이 학생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최고상을 비롯한 우수상 수상작들은 시각적 위계를 적절히 안배한 레이아웃의 세련됨과 표현기법의 다변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